

조선대학교, 전라·제주권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3년 연속 선정

2020-03-26 16:08 노해섭 기자

체육·예술 교육기부 프로그램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는 '2020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의 전라·제주권 수행기관(연구책임자 김현우 교수)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은 다양한 체육·예술 교육기부 체험자원 확대 및 발굴을 위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조선대학교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단은 지난 2년간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 학생들의 만족감이 높았으며, 조선대학교의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사업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에는 전 농구선수 우지원이 광주 고실초등학교와 수완중학교를 방문해 농구 강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장항준 영화감독이 설월여고를, 7월에는 뉴욕대학교(NYU) 전임교원 패트리카씨가 전남외국어고등학교를 찾아 고교생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조선대학교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단은 2019년 사업평가 결과 우수 거점대학으로 평가되어 올해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선대학교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단은 전라·제주권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내 대학생 동아리와 명사들이 광주, 전남, 전북의 특수학교, 소외지역학교, 교육복지학교 등을 방문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조선대학교는 올해에도 전라·제주권 최대의 스포츠스타와 예술가를 배출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 체육·예술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우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단장(교육대학원 체육교육과 교수)은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기부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질 좋은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전라·제주권 '체육·예술 교육기부** **#민영돈 조선대 총장**

위키트리 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주)소셜뉴스는 이 글에 대한 재배포 권한을 갖습니다.

© Social News Co., Ltd. All Right Reserved.

조선대,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3년 연속 선정

무등일보 입력 2020.03.26. 15:15 수정 2020.03.26. 15:15



장항준 감독 설월여고 방문

조선대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는 '2020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의 전라·제주권 수행기관(연구책임자 김현우 교수)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은 다양한 체육·예술 교육기부 체험자원 확대 및 발굴을 위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조선대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단은 지난 2년간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 학생들의 만족감이 높았으며, 조선대학교의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사업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에는 전 농구선수 우지원이 광주 고실초와 수완중을 방문해 농구 강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장항준 영화감독이 설월여고를, 7월에는 뉴욕대학교(NYU) 전임교원 패트리카씨가 전남외국어고등학교를 찾아 고교생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조선대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단은 2019년 사업평가 결과 우수 거점대학으로 평가되어 올해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선대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단은 전라·제주권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내 대학생 동아리와 명사들이 광주, 전남, 전북의 특수학교, 소외지역학교, 교육복지학교 등을 방문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조선대는 올해에도 전라·제주권 최대의 스포츠스타와 예술가를 배출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 체육·예술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우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단장(교육대학원 체육교육과 교수)은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기부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질 좋은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기생기자 gingullove@srb.co.kr

저작권자 © 무등일보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